



여주대학교

1993년 12월 1일 창간

The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News

여주대신문

교훈 **사랑 봉사 실천**

※ 교훈은 설립자 정동성 박사의 친필입니다.

제141호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2019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실시

여주시와 더불어 6월 26일까지 진행 40명 교육생 참가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과 여주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3일 우리 대학 본부 4층 다목적실에서 교육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창업 로드맵 수립, 멘토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등 실습 위주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산학협력단은 강연자를 멘토진으로 구성해 교육 이수 후 창업 지원을

위한 요청을 이어갈 계획이라 전했다.

김정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교육에 재학생 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이민자 등 다양한 세대와 지역 구성원이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본교와 여주시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총장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지역사회가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주시와 더불어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9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오는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교육생에게는 최대 700만원이 지원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광고

**여주대신문에서는 학우들의
원고 투고 (자유 주제로 A4 1장 분량)와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간 사 | 2007704@yit.ac.kr 또는
031)880-5498
학보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의 및 투고 바랍니다.

지면안내

- 1면 주요기사**
•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 2면 교내**
• 업무협약 진행
• 방송영상미디어과
청년취업아카데미
• 군사학부, 태권도 특별교육
• 소양천 정화활동
• 학생회 5월 이벤트
- 3면 사람**
• 인터뷰 - 다우퐁언 유학생
• 교내단신
- 4·5면 기획**
• 벚꽃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 6면 특집**
• 학교를 만나다 -
사회복지상담과
- 7면 광장**
• 칼럼 - 100년의 꿈
• 사설
• 기자수첩 -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 8면 문화**
• 인천 차이나타운
•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 「오베라는 남자」
• 독자퀴즈

학보비 안내

※ 학보비는 『여주대신문』
제작에 쓰입니다.
학우들의 원고와 취재를 통해
제작되는 학보 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령

2019년 5월 13일부터 5명을
수습기지에 임명함

- 김진하 (간호학과)
- 김형민 (방송영상미디어과)
- 박철영 (준오헤어스타일과)
- 이혜정 (건축토목과)
- 최수진 (방송영상미디어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여주대학교 업무 협약식

1일시 : 2019. 5. 3(금) 13:30 | 장소 : 여주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



실무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우리 대학이 미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스카이베이호텔-경포와 5월 3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협약식에는 윤준호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과 변기호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대표와 신동진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총장과 각 기관장들은 정책 사업 연계, 연구시설 공동사용, 산학협력 현장실습, 우수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약속했다.

취창업지원처는 “우리 대학의 미션은 ‘창의·도전·협동형 미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다각화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약의 뜻을 전했다.

업무협약에 이끌어 온 윤준호 총장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발전 할 것”이라고 변화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 기자

방송영상미디어과 창업과 취업 한자리, 청년취업아카데미



방송영상미디어과가 지난 5월 16일 평생교육원 열린강의실에서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연계·협력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승인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 및 학과와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업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 등과 연계하여 연수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업·창업까지 연계시키는 사업

이다.

방송영상미디어과는 ‘영상콘텐츠 후반편집 전문가 양성’을 주제로 졸업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개월(7월 1일~8월 30일)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편집 분야의 전문기술을 터득하여 취업약정이 된 약 17개 기업과 취업연계를 계획 중이다.

박진태 학과장은 “우리과는 앞으로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창업능력을 단련하여 실질 효과를 거두는 학내 지원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군사학부, 태권도 특별교육 실시



지난 4월 27일 우리 대학 용마체육관에서 국기원 위원 11명을 초청, 군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특별교육이 실시되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사학부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태권도의 정신과 고난도 기술 함양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주관한 이문석 국기원 위원장은 군사학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여주대 군사학부의 발전을 격려했다.

학생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군사학부 시종성 교수가 국기원 격파분과 고문으로 위촉되어 위촉패를 전달받았다. 국기원은 태권도 정신의 중심지로, 세계 168개국 태권도 협회를 이끄는 본부이자 지도자 연수원이다.

강지훈 기자

소양천 정화활동 진행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이 학생지원처,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와 더불어 3월부터 소양천 정화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윤준호 총장, 김영기 총동문회장 및 봉사단 100여 명이 참여했다.

소양천 정화활동은 2014년 시작되어 2016년 클린누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당해 11월에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봉사단 일원들은 문화교를 시작으로 2km가량의 소양천 일대와 여주역 근처를 정비했으며, 잡풀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를 이끈 김정동 학생지원처 담당은 “학기 중 매월 정화 활동을 해온 결과 소양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시민들도 반응이 좋다.”며 “정화 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임영선 기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실시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현장 방문 평가가 진행되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 지역사회, 산업체, 정부 등의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보증하는 제도이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교육부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위탁받아 대학의 책무, 교육과정, 학사관리 등 모두 7개의 부분을 평가한다.

우리 대학은 2014년 교육품질인증대학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6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2019-1학기 상설아트테라피 시행

학생상담지원센터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상설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센터 방문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상설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은 학습 및 취업에 따른 재학생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걱정인형, 소원팔찌, 드림캐처 만들기, 컬러링-만

다라, 캘리그래피, 책으로 떠나는 힐링여행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상담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상담이 주는 딱딱함을 완화하여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며 “아트테라피 이외에 스트레스 검사, 집단 및 개인 상담도 이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회가 쓴다, 5월의 이벤트

학생회가 지난 5월 8일 600여명의 재학생들에 아이스크림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는 6월에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인터뷰 ... 다우퐁언 유학생

글로벌 리더를 꿈꾸다

우리 대학은 최근 K-MOVE 해외취업 사업 6년 연속에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한국형 사립대 설립을 함께 진행했다. 자타공인 국제 교류에 활발한 대학이다.

‘협동형 글로벌 인재’라는 학교의 인재상에 걸맞게 한국으로 유학을 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만났다. 자동차과 다우퐁언 베트남 유학생이다. 베트남은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관광을 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나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눈여겨볼 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나라이기도 하다.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 다우퐁언을 통해 베트남을 알아보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한국에 유학 온 계기가 궁금하다.

자동차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우퐁언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이제 2년 되었다. 여주대에 입학하면서 한국에 왔다.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름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다. 여자 이름에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꽃의 이름이 많이 쓰이고, 남자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성품을 반영한다. 내 이름의 ‘다우’는 성이고 ‘퐁’은 공평을, ‘언’은 은혜를 뜻한다. 베트남 중부지방인 ‘응에안’에서 살았다.

한국은 K-POP에 관심이 많았다. 한류가 대단하다. 가요 등을 알아가다 보니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다. 가요 중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빅뱅’이다. 음악이 신나고 반복되는 후렴구와 파워풀한 보컬이 좋았다. 노래를 좋아하다보니 자연히 그룹 자체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다른 한국 가요도 듣고, 드라마나 예능을 보게 되면서

한국이 많이 궁금해졌다.

최근에는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인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선은 한국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한국 분들도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시더라. 한국어가 베트남어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첫째로, 베트남어에는 어순이 없다. 있더라도 영어와 매우 유사하다. 한국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 말이나 문장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전체 문장을 파악해야한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읽는 것은 쉬운데 말할 때는 더 어렵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베트남어에 없는 조사들이다.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들을 어떨 때에 붙여야하는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높임말이 상당히 어렵다. 베트남어는 경어법이 단순하다. 한국어 공부에 어려워서인지 한국말이 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취감도 크고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공부가 점점 재미있어진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이 매우 ‘정(情)’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친구들도 잘 대해주고, 교수님들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다. 특히 한국어학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어학원에서 근로학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언제나 필요한 게 없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봐주시다.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유학생들이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많다. ‘겨울연가’를 재미있게 봤는데, 남



이성이 무척 아름답더라. 한국의 고유 건축물인 경복궁도 그 웅장함에 감탄을 많이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인상적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여주대를 알게 됐다. 그 중 자동차과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베트남이 최근 급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여주대 자동차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융마축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역시 학교의 대표 축제로 손꼽힐 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는 축제를 통해 학과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학우들끼리 단합을 도모한다고 들었다. 융마 축제는 그

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인 것 같다. 중간고사가 지나면 축제가 기다려진다.

현재 학과 생활을 하면서 ‘투모로우’라는 글쓰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언어 문제에 있어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만든 동아리이다. 유학생들이 모여 같이 글쓰기 연습을 하거나 읽기 등을 공부하고 있다. 아무래도 유학생이라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재미가 있다.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다. 이번에 벚꽃 축제 사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처음에는 공고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작년에도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지만 딱히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 올해는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 학교가 꽃들이 예쁘게 피고, 나무가 많아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공학관 앞에는 작은 벚나무들이 매년 아름답게 핀다. 저 나무들을 학과 실습실과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고민하다보니 사진에 내 마음을 담아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앞으로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여전히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할 생각이다. 비록 베트남인이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다. 동아리 활동이나 한국어학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한국어 공부를 할 것이다. 학과 공부도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추후 한국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정윤, 임영선 기자

교내단신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19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6월 13일 마감된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월)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하는 게 좋다. 이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용음악과 소나기 공연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의 소나기 공연이 지난 5월 8일 아람광장에서 열렸다. ‘소중한 나의 꿈과 열정을 다시 기억해본다’는 뜻을 지닌 공연은 2012년 봄을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창작곡, 커버곡을 가지고 열린다. 무대에 오르는 학생들은 학생회 자체 공개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이 되며, 보통 12팀에서 최대 18팀까지 선발된다. 올해 공연에는 47개 팀이 오디션을 거쳐 총 14팀이 참여했다. 김현중 학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팀이 늘어나 질 높은 공

연을 선보이고 있다”며 “실용음악과의 이름을 드높이는 학생들의 열정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소나기 공연은 자유로운 창작 및 연주활동에 있어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젊은 예술가로서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

의료재활과학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

의료재활과학과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린 2019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가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의료재활과학과는 ‘3D 프린팅 의지보조기 체험’ 부스를 마련해 박람회 참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전유재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보건 및 공학계열 융합 학과로 2017년 신설되어, 4차 의료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비전과 전망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박람회에는 3일간 약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스토리텔링 학과 경진대회

우리 대학 취업지원센터에서 ‘2019 스토리텔링 100초의 품격 학과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된 대회에는 전체 19개 학과 991명이 참여했다. 학과별로 152명이 수상했다. 경진대회는 자기소개, 학습활동, 생활활동을 재학생이 편집·구성하여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취

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학과별 수상자 중 추천받은 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8일 마로니에홀에서 ‘100초의 품격 대학 경진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측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라 전했다.

2019-1학기 기초 및 직업능력 진단

장영실교육혁신원에서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201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능력과 NCS 직업기초능력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신입생의 기초학습능력 진단 결과를 기초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수준에 맞는 교수법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했다. 의사소통능력(국어, 영어), 수리능력(수리), 직업기초능력 4개영역을 전공에 맞게 선택적으로 실시했다.

혁신원은 이후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향상교육을 지원하여 향후 향상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학과에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상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진행

학생상담지원센터에서 재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5월 8일에는 ‘찾아가는 심리검사’를 마련, 대학본부 3층 통센터에서 TCI 기질 및 성격검사, K-BDI-II(우울검사), K-BAI(불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오는 5월 말에는 ‘연인, 절친을 위한 관계진단’을 실시한다. 센터는 지난 2018년 진로 및 심리상담 요구도 조사 결과 많은 재학생들이 ‘친구, 이성 등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응답을 토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튜더링 학습동아리 진행

장영실교육혁신원에서 오는 6월까지 튜더링 학습동아리를 진행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능력 향상 및 능력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보건의료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12개 학과 28개 동아리, 60명이 참여하며, 해당 동아리는 각 1일 2시간, 최소 5회 이상 학습 교육을 실시한다. 혁신원 측은 학습 튜터-튜티 또는 생활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 전했다. 또한 지도교수의 관리 하에 전공 및 기초학습 분야 학습 능력 향상과 재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및 직무분석 학과 경진대회 열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9 기업 및 직무분석 학과 경진대회’가 열렸다. 방송영상미디어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406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62개팀이 수상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맞는 기업이나 직무를 조별로 선정,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지원센터는 학과별 우수자들을 선발하여 오는 5월 30일 콘서트홀에서 전체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라 전했다.

벚꽃이 좋다. 우리 함께 걸어요!

따뜻한 봄이 오고 동시에 교내에는 화사한 꽃망울이 터져 나왔다. 예전부터 벚꽃이 예쁘기로 유명한 우리 학교 후문 길은 벚꽃축제 덕분에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행복한 봄이 되었다. 4월 8일부터 12일 까지 ‘여주대학교-벚꽃이 좋다 우리 함께 걸어요!’ 꽃비가 아름답게 내렸다. 팝콘과 음료 나눔, 실용음악과와 소리를 공연, 사진 콘테스트 등 벚꽃과 함께 학생도, 지역 주민도 행복했다.

YIT 벚꽃 축제 사진 콘테스트 수상자

- 최우수 | •다우퐁언(자동차과), 행복해야 해요!
우 수 | •송인철(실용음악과), 도원결의
장 려 | •오윤경(안경광학과), 여주대 나들이
•노연희(간호학과), 받아라 F 잘가라 A
- 김민호(국방장비과), 우리 하늘을 날아요
•정재희(패션산업과), 무지개 버-억꽃
•엄지원(작업치료과), 벚꽃 슈퍼 점프 콘테스트
•도혜지(물리치료과), 위대한 P.T
- 김은빈(패션산업과), 영웅본색
•주현호(패션산업과), 무엇이 꽃인가
•정윤(사회복지상담과), 꿈을 향해
•김선우(자동차과), 벚꽃처럼 활짝 핀 우리들의 미래



행복해야 해요!



우리 함께 날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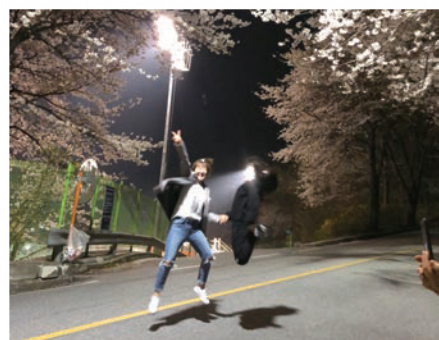
도원결의



무지개 버-억꽃



여주대 나들이



벚꽃 슈퍼 점프 콘테스트



영웅본색



무엇이 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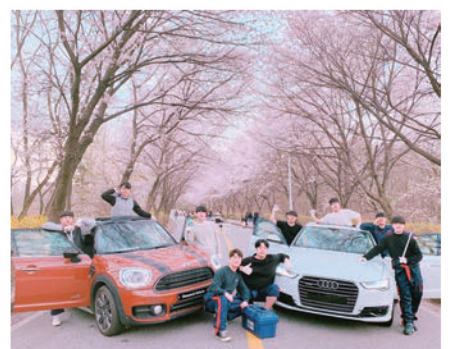
받아라 F 잘가라 A



위대한 P.T



꿈을 향해



벚꽃처럼 활짝 핀 우리들의 미래



나무와 혼연일체



나한테 기대



업무가 끝난 후-학생회



재미상-작업치료과 고동현



토마스와 친구들



내가 대한민국 지킴이!



투모로우 동아리



봄 기운과 체력



봄과 여주대학교



비상하는 특수전과



벚꽃과 호텔관광과



오리가족



벚꽃과 간호학과



재미상-특수전과 백종철



꽃보다 아름다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무릎을 빌려줄게



최강 커여움 작치



리멤버 물치



벚꽃의 꽃말은 학식



내 꽃을 받아주오

학교를 만나다 - 사회복지상담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든다

우리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공간이 낯설고, 때로는 어렵기까지 하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수업 이외에는 캠퍼스 시설이나 다른 학과의 활동,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학보사에서는 ‘학교를 만나다’를 통해 학우들이 궁금했던 학과, 부서, 시설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복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복지 단계에 진입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을 만큼 복지는 우리 사회와 이제는 아주 밀접하다. 그런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매년 많은 대학들의 사회복지과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학과장을 만나다



김성희 학과장

사회복지상담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성희 학과장을 만났다. 사회복지상담과는 예전부터 학생과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기로 유명하다. 그녀를 통해 사회복지상담과의 전망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학과장실에서 만난 김성희 교수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오랜만에 학과 행정 업무와 학과장직을 맡게 되어 업무 처리 감각을 다시 익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성과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커졌고, 학과 자체 조사결과 보육교사로 취업하는 비중이 줄어 학교 명칭을 사회복지상담과로 개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상담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말도 강조했다. 사회복지현장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학과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야만 한다고 학과 교수님들과 의견을 모았고, 학과 명칭 변경과 함께 상담 관련 전공과목의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사례관리에 관한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상담과는 2019년도 4년제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한다. 사회복지과는 2004년에 생겨서 2014년에 3년제로 전환했다, 그때부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논의가 학과 안팎에서 나왔다고 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생각만큼 반응이 없어 힘들었다는 말도 전했다. 현재는 18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공심화과정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

김성희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상담과는 여주시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학과 수업이 현장과 연결되어있는 것을 학과의 강점이라 말했다. 추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상담 전문 영역을 더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녀는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가능성을 꼭 믿으라는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대학 사회복지상담과는 2018년 사회복지과에서 학과 명칭을 개칭하였다. 복지와 상담을 접목하여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날로 중요해지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기술과 상담을 기반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 사회복지상담과는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2,3학년에는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감각을

기른다. 올해부터는 전공심화과정을 연계 운영하여 학생들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사회복지상담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서는 우수 학과이다.



학생들을 만나다

사회복지상담과 이것을 자랑한다!

-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김은경, 2)
- 전공심화과정이 있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조영준, 2)
- 교수님들과 거리감 없이 편해서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안영준, 2)
- 이 학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

나는 이래서 사회복지상담과를 선택했다!

-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고서영, 1)
-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아 노인복지에 관심이 생겼다. (홍수민, 1)
- 사회복지 분야가 사회적으로 유망한 전공이라 관심을 가졌다. (이혜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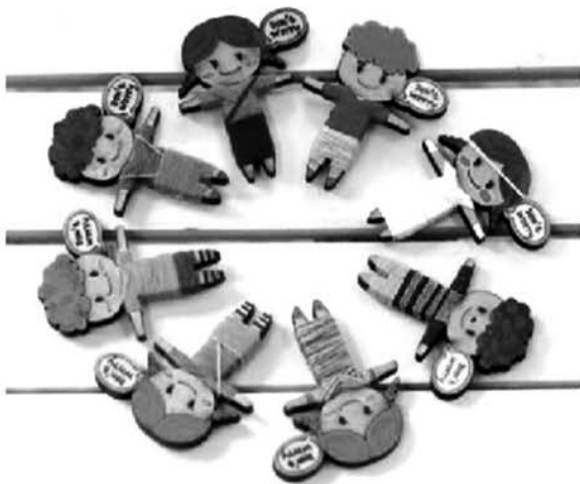


2019학년도 상설 Art Therapy

걱정인형 만들기 / 소원팔찌, 드림캐쳐 만들기
컬러링 / 캘리그래피 / 책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대상 | 여주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기간 | 2019년 3월 18일 ~ 6월 21일
시간 | 10시 ~ 18시
장소 | 학생상담지원센터(031-880-5565, 5567)

학생상담지원센터는 심리상담, 진로상담, 자기돌봄(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칼럼

100년의 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1919년 3월 1일.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후손들의 삶을 바꿔놓을 엄청난 큰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였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아울러 삼킨’ 한일병탄(韓日併呑) 이후 식민지 통치에 신음하던 이들이 독립을 선언하였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의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그날에는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은 외쳤지만, 그 나라가 누구의 어떤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1919년 4월 11일. 중국의 상해에서 각 도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의결·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3월 1일에 외쳤던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에 ‘민국’(民國)이라고 덧붙여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주인을 규정하였다. 1897년, 1년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하고 돌아온 고종은 스스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뒤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선포하였다. ‘대한’이라는 이름의 ‘임금’(帝)의 ‘나라’(國)라고 하였다.

상해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여 만들 새로운 나라를 ‘대한’이라는 이름의 ‘국민’(民)의 ‘나라’(國)라는 의미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 하였다. 나라 이름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임금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음

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나랏일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인 ‘주권’(主權)이 임금 1인에게 있는 군주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는 공화국(共和國)이라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그 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920년 1월 임시정부 내무총장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년 축하회에서 ‘민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한 사람의 황제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2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입니다. …… 황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2019년!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공화국은 참이나 거짓이라 선택해야 하는 명제도 아니고, 절대선이라 주장하는 독단적인 도그마(dogma)는 더욱더 아니다. 이는 인류가 전지전능한 초인을 찾겠다고 흘러 보낸 수 천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3·1 운동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도 ‘평화’와



① 1925년 10월 20일 작성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1919년 임시정부에서 활약 당시 추정
② 1932년 7월 4일 경기도 형사과에서 촬영한 도산의 서대문형무소 수형 카드
③ 1937년 11월 10일 150여 일간의 옥독한 심문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된 수형 카드

출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이버전시관

‘생존’이라 한다. 민주공화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꿈이자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형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평화’와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노력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평화’와 ‘생존’을 위한 각성과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백년의 꿈은 여전히 미완인 채 진행 중에 있다.

이동선 사회복지과 교수

사설

유튜브 사회와 언어 수준

5월의 신록도 이제는 짙은 녹음으로 변해간다. 중간고사 이후 학내외 크고 작은 행사가 집중되면서 봄 학기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은 느슨해진 마음의 고삐를 다시 죄어 학업에 전념할 때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현상이지만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보려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수시로 개인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등을 시도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를 통한 자극적인 말들이 한국 사회를 저질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

고 가짜뉴스가 게이트 키퍼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막말 배틀의 심각성도 제기된다. 유튜브 영상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정보 전달력의 속도와 파급력에 있어 기존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이 스타가 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 제목과 순식간에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미지로 승부하려 한다.

바로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막말이 판을 치고 있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막말은 존재했지만 2019년 현재 막말은 한국사회 전체를 진영논리에 함몰시키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가리켜 “괴물” “사이코패스” “한센병 환자” “장애인” “도둑놈” 등

험한 말들이 끝없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물론 제목이 자극적이고 통쾌할수록 클릭 수는 늘 것이고 지지자들을 열광시킬 수 있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욱 더 심한 막말과 오염된 언어가 난무할 것이다. 이는 공중파보다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보다는 오프라인 강연이나 집회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심지어는 교육의 현장인 강의실에서도 개인의 관점을 내세운 막말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막말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남발하는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개개인 국민이다. 이들이 막말을 남발하는 것은 본인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며 국민 개인의 품격과 자질을 폄하하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즉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말을 쏟아낸 사람을 질타하고,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그러

한 말들이 의도하는 바를 간파하고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이나 정치에 함몰되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사이버 교육자들이 선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언어는 그 사람 또는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다. 자극적인 말들은 결국 사회가, 개인이 병들고 오염되어간다는 방증이다. 공론을 오염시키는 험한 말들은 건전한 토론을 저해하고 최소한의 합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행동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평소에도 일상의 언어에서 욕을 자제하고 감사와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남을 비판할 때도 풍자와 반어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기자수첩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꽃피던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몸에는 땀이 흐른다. 급하게 찾아온 여름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여름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살’이다. 그런 만큼 5~6월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주위만 봐도 벌써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을 목표로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가 다양하다. 단식, 악을 통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다이어트를 통해 오히려 몸을 망가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몸에 건강한 다이어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 유명한 GI 지수 다이어트이다. GI 지수란 ‘혈당지수’(Glycemic

index)로 음식 섭취 시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리고,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다. 즉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린다. 식사 후 체내의 혈당지수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 체지방을 축적해 역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저인슐린(Low GI) 다이어트란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주로 GI 60 이하인 식품 이용)으로 구성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는 완두콩, 강낭콩, 사과, 두부, 양상추, 딸기, 포도, 토마토, 우유, 요쿠르트 등이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 구운 감자, 옥수수, 초콜릿, 당근, 식빵, 딸기잼, 팬피자, 도넛, 떡, 콘플레이크 등은 혈당지수가 높아 체지방을 쌓게 한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다. 최근 TV를 통해 알려져 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은 24시간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3~5번 정도 아침을 걸러서 일상 속에서 공복감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24시간 단식은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600kcal가량을 섭취하고, 16시간 단식은 아침만 거르고 점심, 저녁은 평소대로 먹는 것이다.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도, 조금씩 먹을 필요도 없다. ‘16 : 8’ 방식이 가장 유명하다. 16시간은 공복으로 있다가 남은 8시간 동안 원하는 음식을 먹는 방식이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식사 외의 간식은 모두 끊어야 한다. 폭식도 금물이다. 공복감을 최대한 오래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뿐 아니라 체내 인슐린 수치를 줄일 수 있다. 인슐린이 높으면 비만이나 대사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인슐린 수치가 낮을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간에서 생성되는 IGF-1(인슐린유사성장인자수용체)이라는 호르몬 수치도 감소하게 된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치유해 주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노화방지와 질병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간헐적 단식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청소년이나 임산부, 임신 예정자, 당뇨병 환자,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몸이 약한 노인은 의사와 상담한 후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름이다. 맛있는 것은 어디나 널려있지만 살을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그냥 내내 굶기는 더 어렵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그저 굶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소망한다. 단순히 살만 빼고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기에 앞서 한번 더 내 마음을 점검하자. 단지 마르고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자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자.

최치원 객원기자

■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에서 느끼는 중국



한국관광공사

봄은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 여행을 제일 많이 떠나는 시기이다. 유명 관광지는 봄이 되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멀리 떠나기는 싫지만 여행을 가고 싶다면 인천에 있는 한국의 중국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해보자.

인천은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드라마 촬영지로 자주 나올 뿐 아니라 먹을거리가 많은 동네이다. 인천하면 동화마을, 올왕리 해수욕장, 동막 해변, 무의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명소는 인천역이랑 가까운 차이나타운이다.

차이나타운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중국인 집

중거주 지구를 말한다. 차이나타운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06년 4월부터다. 샌프란시스코 대화재 이후 해당 지역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각 나라마다 아시아의 문화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차이나타운이 발전한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뉴욕 맨하튼의 차이나타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항을 통해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인천시 중구에 차이나타운이 자리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은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하다. 해서 인천역에 내리기 전에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서 맛집을 검색해보면 좋다.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중국집과 길거리 음식이 많기 때문에 맛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중 최근 들어 인기가 있는 것은 ‘탕후루’이다. 유튜브와 맛집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더했다. 탕후루는 설탕물을 덮은 과일 사탕의 일종이다. 그중 딸기 탕후루가 가장 유명하다. 달달하면서 바삭한 식감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간식이다. 그 외에도 중국의 전통 차와 빵, 떡을 맛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을 더욱 분위기 있게 즐기고 싶다면 중국의 전통 옷을 대여해서 돌아다녀도 좋을 것이다.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와 화려한 장식품을 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임영선 기자

■ 문화신책

오리지널과의 작별

개봉을 하면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영화가 있다. 마블에서 만든 히어로물이다. 올해 4월은 특히 이 영화로 TV, 라디오, 인터넷이 시끄러웠다.

‘어벤져스-엔드게임.’

한국 박스오피스 역대 일일 최다 관객수, 개봉 첫 주 최다 관객 수 등 연일 신기록을 세웠다. 2012년부터 7년 동안 달려온 ‘어벤져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자 우주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웅들의 긴 서사가 마무리되는 최종화이다. 개봉 첫날에는 전국 대부분 영화관이 매진행렬을 이어가기도 했고,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의와 서사의 탄탄함에 대한 칭찬이 줄을 잇기도 했다.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은 오리지널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축하하고 싶기 때문에 관람을 했을 것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와 이어진다. 타노스에 의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영웅 뿐 아니라 보통 사

람들의 슬픔과 무력감을 영화는 곳곳에 드러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 않고, 기억을 간직한 채 기운을 내어 살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대한 트라우마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영웅들은 끊임없이 고뇌하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인기가 많은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화가 언제나 영웅의 외피를 쓰지만 인간의 고뇌와 연대, 희망의 의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가 끝났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은 10여 년간 우리의 기억에 자리한 영웅과의 작별을 덤덤하게 보내주는 과정이다. 여전히 그들이 아쉽겠지만 우리는 안다.

오리지널은 영원할 것임을.

강지훈 기자



■ 책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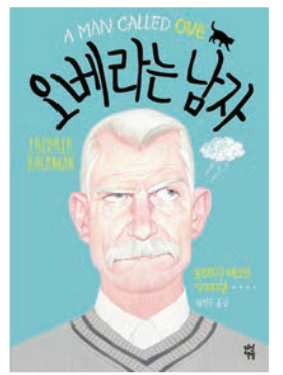
까칠하지만 따뜻한 남자, 오베

『오베라는 남자』의 탄생은 재미난다. 저자인 프레드릭 베크만은 30대 중반의 유명 블로거이자 칼럼니스트였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베에 관한 내용을 올렸는데, 많은 이들이 이 캐릭터에 반해 더 써볼 것을 권유하면서 책으로 나오게 된다. 2015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오베는 고집이 세고 심술이 많은 할아버지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다.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에게 세상은 녹록치 않았다. 그런 세상에서 그는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심술쟁이로 살아간다. 그러다 소나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소나는 무채색이었던 오베의 삶의 유일한 색이었다. 하지만 임신 후 간여행에서 소나는 아이를 잃게 되고 불임과 함께 장애를 가진다. 그럼에도 소나는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오베도 그녀의 곁을 지킨다. 결국 소나는 암에 걸려 오베의 곁을 떠나고, 상실감에 찬 오베 역시 그녀를 따르고자 한다. 이 소설의 별미는 이 이후부터다. 오베의 자살시도는 옆집은 파르바네 가족들 때문에 연거푸 실패한다. 그 과정에서 오베는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된다.

오베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부주의 또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점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생각하고 살았다. 때문에 괴팍스럽고 통명스러운 겉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베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그의 성격에 더욱 연민을 느끼게 된다. 소설도 오베와 파르바네 가족의 교류를 아주 잘 그려냈지만 영화로 봐도 상당히 재미있다.

정윤 기자



다산책방

■ 독자퀴즈

1. 4월 22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2. 학생회 5월 이벤트 나눔 상품은?
3.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은?
4. 중국의 전통의상 이름은?
5. 『오베라는 남자』 저자는?

★ 2007704@yit.ac.kr 또는 ‘여주대학교학보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응모해주세요.

★ 추첨을 통해 채택된 학우에게는 CU 편의점 기프티콘(1만원권)을 드립니다.

★ 학과, 이름, 연락처 중 하나라도 미기재시 신분확인 불가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행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140호 독자퀴즈 당첨자 |

김도원 (반도체시스템과), 이찬우 (무인항공드론과), 이은희 (간호학과), 이승화 (도시공간디자인과), 김희진 (간호학과)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 | 2019년 5월 15일(수)~6월 13일(목) 18시까지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